

북스

Books

그들은 어떻게 마이스터가 되었나

(Meister·장인)

배한성-천년을 담은 천의...
이현세-신화가 된 만화가
최민식-진실을 담은 시선



하게 고백하고 있다. 북으로 간 아버지 대신 어린 나이에 가장이 되어 했던 배한성은 배우가 되고픈 꿈을 접고 상고에 진학했지만 독특한 오른손 때문에 주판을 놓을 수 없어 늘 좌절해야 했다. 더벅머리 '까치 아빠' 이현세는 오랜 기간 연좌제에 짓눌렸고, 색약 때문에 미술가의 꿈을 포기한 아픈 사연을 갖고 있다. 80이라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카메라 가방을 메고 집을 나서서 최민식의 사진에는 '인간'이 숨쉬고 있다. 항상 소외받고 가난한 사람들에 영감을 맞춘 그는 '아버지는 가난한 사람들을 팔아서 자신을 자랑하는 거예요'라는 딸 아이의 말에 자신의 삶을 다시 돌아보게 됐다고 고백한다.

그들의 삶 속에는 '역사'가 녹아 있다. 1966년 성우의 길에 들어서던 후 인기절정에 있던 성우 배한성에게 '포로 수용소로 끌려가는' 심정의 패배감을 안긴 건 1980년 언론통폐합이었다고 그는 당시 대통령과의 오찬을 피하기 위해 방송대상 후보에서 빼달라는 '로비'를 하기도 했다.

우울한 표정의 인물을 그려서도 안했던 군사정권 시절 '심도의심은 쪽집게, 나는 미꾸라지'라는 생각으로 교묘하게 심의를 비껴나갔던 이현세, 그는 '천국의 신화'라는 작품으로 붙은 '음란작가'라는 딱지를 떼기 위해 6년에 걸친 법정싸움을 치렀고 결국 '무죄' 판결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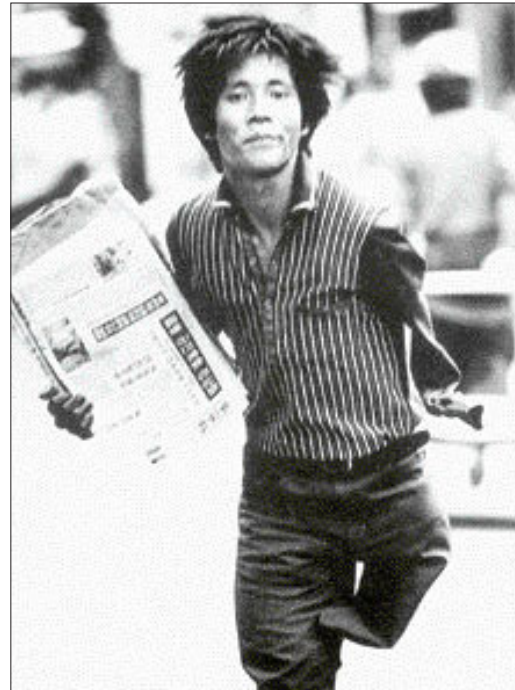
최민식은 '외국 초청전에 왜 그런 못 먹고 못 입는 국민들의 사진을 보내느냐'며 수시로 중앙정보부에 끌려다녔고 그들의 공작으로 생계마저 위협받아야 했다.

그밖에 모차르트의 미친듯한 웃음 소리가 인상적이었던 영화 '아바데우스'와 '백가이버' 시리즈를 더빙하게 된 사연, '공포의 외인구단' '지옥의 링' '남벌' 등 유명 작품의 탄생 비화 등 재미있는 뒷 이야기도 만날 수 있다. <도서출판 예문·각권 9천800원>

/김미가기자 mekim@kwangju.co.kr



만화가 이현세의 분신과도 같은 '까치'



사진작가 최민식의 대표작 중 하나인 '부산 1985'

'과학이 행복한 이유' 7명의 여성과학자 삶

여성 과학도들이 세계적 인 여성 과학자들을 만나 그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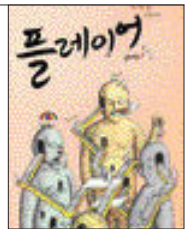
'과학해서 행복한 사람들'은 지난해 1월 시작된 아시아태평양 이온물리센터(APCTP) 과학 커뮤니케이션팀(팀장 정재승 카이스트 교수)의 기획 프로젝트로, 거의 2년 만에 결실을 맺은 책이다.

표면 화학 분야의 권위자 카와이 마키 도쿄대 교수, 현정사상 최장수 여성장관인 김명자 의원, '뉴욕타임스'가 자랑하는 지나 폴라타 과학전문기자, NASA의 크립 프로젝트 총지휘자 서은숙 메릴랜드대 천체물리학자 교수 등 7명의 여성과학자들은 '과학자의 삶은 고되지만 도전할 만 하다'고 조언한다.

(사이언스북스·1만5천원)

돈받고 놀아주다 '나'를 잃다

플레이어 최재경 지음



돈을 걱정하지 않고 놀아보는 것은 누구든지 해봤을 공상 중 하나다. 여기에 돈 걱정 없이 놀면서 그 대가로 돈을 받으면 금상첨화일 것이다. 현실에서는 불가능하기에 '몽상'에 가까운 일이다. 하지만 친구와의 전화 통화에서 "나 지금 노노라고 바빠"라는 말을 무심코 던진 뒤 무상권 최재경<사선>의 소설 '플레이어'에서는 가능하다.

소설집 '숨쉬는 새우깡'(2001년·민음사 펴냄)으로 문단 내외의 주목을 받았던 저자가 '반복' 이후 10년 만에 두번째 장편소설을 펴냈다. 제목 '플레이어'는 의뢰인을 대신해 놀아주고 돈을

받는 신종 직업을 뜻한다. 소설 속 주인공 유노는 농담삼아 던지곤 했던 말 "돈 받고 노는 것이 꿈"을 현실화해 '노는 사람'이라는 의미의 PL(Player)이 된다. 인터넷 몰의 잘나가는 MD였던 유노는 한 순간의 실수로 백수가 됐지만 우연히 본 생활정보지의 광고를 통해 '밧기 어려운 새' 직업을 갖게 된 것이다.

PL들은 고객 의뢰한 경험을 고스란히 의뢰인에게 돌려주며 소유권을 주장해선 안 된다. 유노는 다리가 없는 장애인으로부터 제주도의 고급 호텔에 투숙하면서 외제 스포츠카를 타고 해안선을 달려달라는 첫 의뢰를 받는다. 제주 바다바람을 쐬며 드라이브를 하는 동안 전화를 걸었던 친구에게 유노는 "노노라 바쁘니까 나중에 전화할게"라고 말한다.

부족한 감성 때문에 CEO 경쟁에서 뒤처지게 된 대기업 고위 간부는 유노에게 특정인과의 불륜을 의뢰한다. 유노는 현실과 놀이 사이의 모호함 속에서 자신



의 감정과 경험에 대한 환란에 빠진다. 유노에게 놀이는 더 이상 '노는 것'이 아니라 현실이자 일인 것이다. 유노는 '과연 내 인생의 주인공은 의뢰인가 나인가?'라는 실존적인 질문을 떠올리게 된다. 말도 안 되는 설정이지만 가볍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소설은 성진환으로 여자가 된 헤리, 유노와 함께 PL이 된 제인, 헤리를 좋아하는 미니 등 등장인물 간의 관계가 얽히면서 추리소설 형식을 띤다. 놀이와 삶, 돈의 가치 판단은 독자의 몫. 한국에서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돈'이라는 최근 한 설문조사 결과가 의미심장하게 다가온다. <민음사·9천500원>

/정삼필기자 camus@kwangju.co.kr

▲루시퍼의 눈물(전 2권)=마이클 코디가 선보이는 스릴러 소설. 죽은 이의 영혼이 본 세계를 엿볼 수 있는 '영혼 프로젝트'를 소재로 과학적 지식과 함께 종교적 상상력이 어우러졌다. 죽은 너머의 세계에 대한 독특한 해석과 통찰력을 엿볼 수 있다. <노블마인·각권 8천800원>

▲캐러멜 팝콘=현대인의 고독과 불안에 그려온 작가 요시다 슈이치가 고이치·나오즈미 형제와 고이치의 아내 게이코, 나오즈미의 연인 신도 레이 네사람을 통해 사랑, 결혼, 가족이라는 달콤한 이상 속에 숨어있는 쓸쓸한 군상들을 그려나간다. <은행나무·9천500원>

▲닐스의 신기한 여행(전 3권)=셀마 라게르레프의 성장 소설이다. 우리말 출간 100주년을 기념해 국내 최초로 선보이는 원역본이다. 심술긋은 소년인 엄지 손가락만큼 작아져 거위를 타고 모험과 견문을 쌓는 과정은 어른이 보기에 도 흥미진진하다. <오즈북스·각권 9천원>

▲김산 평전=남 웨일즈의 '아리랑'을 통해 알려진 항일투사 김산의 생애를 다룬 책이다. 저자 이민규는 김산의 미공개 자료 발굴과 그의 숨겨진 어린 시절을 여러 차례 답사한 끝에 그의 감춰져있던 파란만장한 삶을 생생하게 다룬다. <실천문학사·1만5천원>

▲전수천의 움직이는 드로잉=설치 미술가 전수천의 매머드 프로젝트 '움직이는 드로잉'의 7박 8일간의 기록을 공개한다. 2005년 9월 14일 뉴욕 펜스테이션에서 출발한 전수천의 작품은 흰 천을 두르고 출발할 열차다. 5천500km에 이르는 미국 대륙 횡단의 궤적을 통해 만남과 소통을 연출한 과정이 소개된다. <시공아트·1만5천원>

▲마음챙김의 지혜100=한국을 대표하는 고승들이 전하는 법문을 통해 '참 나를 깨닫는 법'을 설명한다. 저자 윤희식과 오병문은 원효대사, 지눌 등 한국불교 1천600년 역사 속에 빛나는 큰 스님들이 펼치는 법문을 통해 한국 불교의 이상을 살펴본다. <보통동래·1만5천원>

▲소리를 잡아라=음악학의 권위자 마르카초가 현대 음악 생활을 바꾼 녹음 기술에 대해 이야기한다. 시간과 함께 공간 속으로 사라져버리는 소리를 물질 속에 가두어 일회성을 이겨낸 녹음이 연주 관행, 작곡 방식에 미친 영향을 다각도로 살펴본다. <마티·1만 8천원>

▲조선 상고사=20세기 조선 최고의 천재 사회학자, 사상가, 혁명가였던 단재 신채호 선생의 '조선상고사'를 현대말로 옮겼다. 일반인들에게는 어려웠던 고어체를 현대말로 바꾸고, 한문으로 돼 있는 인용문도 우리말로 옮겨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게 했다. 우리 고대사의 참모습을 논리적으로 분석했다. <비룡출판사·2만2천원>

▲하루키를 읽는 법=세계 30여 개국에서 번역·출판되며 베스트셀러 행진을 하는 하루키의 대표작을 분석한다. 하루키 연구의 일인자로 꼽히는 히사미 쓰바키와 구와 마사토는 '비람의 노래', '상실의 시대', '댄스 댄스 댄스' 등 초기 대표작 속에 등장하는 키워드의 유래와 의미를 낱말이 분석한다. <문화사상사·9천원>

062-222-6253 www.donga.tv

TOEIC 만점의 꿈!
'중·외국어'가 도와 드리겠습니다.

토티 토익
해커스 토익

062-222-6253 www.donga.tv

외국어학원 최정상

동아외국어학원

2006년 빛고를 명품가구 박람회 기념 SALE

▶ 11월 11일~12일 할인 행사

▶ 11월 11일~12일 할인 행사

▶ 11월 11일~12일 할인 행사

▶ 11월 11일~12일 할인 행사

명품가구 박람회 1층 현대가구전문점 062-955-5820